

강연·답사 코스를 위한 자료

“큰 나라 위해, 작은 나라 바치시다”

101년 전, 희망 없는 나라에서 빛을 찾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의 자격을 갖추고자 했다. 3·1 만세운동의 피로 나라 밖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국민이 되는 길을 열었다. 우리는 왜 나라 밖에서 우리의 '정부'를 세워야 했을까?

1919년 4월11일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국내외 지도자들이 중국 상해에 모여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선언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된다. 상해는 이후 항일 투쟁의 역사가 전개되었던 곳이며, 우리 상해한국학교의 전신인 인성학교가 있던 곳이기도 하다. 인성학교(仁成學校)는 1917년 상해에서 한인거류민의 자제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던 학교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후 그 산하에 들어갔다. 지·덕·체 및 사회공헌의 훈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장래민족운동가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인성학교의 민족정신은 오늘날 '세계를 가슴에 품고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자'를 교훈으로 삼아 상해 유일한 한국학교로서 교민 자녀들에게 한국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해한국학교가 계승하고 있다.

1) 임시정부 관련 유적지

- ① 상해임시정부-黄浦区马当路302-304号
- ② 김해산의 집-김구와 윤봉길이 마지막으로 식사를 한 黄浦区元昌里13号
- ③ 프랑스 공원-한국 노병회의 첫 단합대회가 이뤄진 黄浦区复兴中路复兴公园
- ④ 영경방 10호-김구의 거주지였던 黄浦区黄陂南路350号
- ⑤ 사해다관/상해기독교청년회 사무실-김구와 윤봉길이 의거를 협의한 黄浦区兴业路169号
- ⑥ 만국공묘-임시 정부 2대 대통령을 지낸 박은식 및 신규식, 노백린, 안태국, 김인전 등의 묘지 초석이 자리하고 있는 长宁区宋园路21号
- ⑦ 매헌-윤봉길 기념관 虹口区四川路 2288号(鲁迅公园内)
- ⑧ 어메이루 위안소-일본 해군이 직접 운영하던 위안소 虹口区峨嵋路400号
- ⑨ 다이살롱 위안소-세계 최초의 일본군 위안소 虹口区 东宝兴路125弄
- ⑩ 상해사범대 위안부 역사 박물관-徐汇区冠生园路465号
- ⑪ 황포탄 의거지-오성륜과 김익상이 일본육군대장을 저격한 黄浦区外滩公园
- ⑫ 영안공사 대동여사-안창호가 애용하던 숙소 黄浦区九江路600号
- ⑬ 신규식 거주지-항일 독립운동과 중국의 신해혁명을 연결 짓는데 중요한 인물이었던 신규식이 거주한 黄浦区南昌路100弄5号
- ⑭ 신천지 일대-김구 가족 거주지와 인성학교 터 黄浦区马当路404号
- ⑮ 모이당-국민대표회의 장소였던黄浦区西藏中路316号

* tvn프로그램 유퀴즈온더블럭 제67화 남겨진 이들의 역사(2020/8/12)와 책, *상하이화동고고* 등 참고

2) 당시 상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유적지

① 중국공산당일대회지기념관 中国共产党第一次全国代表大会会址-兴业路76号

1923년에 최초로 열린 중국공산당 제1차 회의 개최지 현장에 세워진 기념관이다. 중국공산당 창립 시기의 역사와 문헌이 전시되어 있다.



② 저우공관 周恩来故居-沿马路东侧的73号

중국인들의 가슴속에 뛰어난 사상의 정치가로 남아있는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상해에서 머무르던 곳이다. 1946년부터 1947년까지 중국 공산당 대표단 주 상해 사무소로 사용하면서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외부 인사들을 접견한 장소이기도 하다.



③ 손중산 고거 孙中山故居纪念馆-香山路7号

중국 근대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며 중국 혁명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손중산(孙中山)의 상해 거주지이다. 1918년부터 1924년까지 살았던 이곳은 유럽 정원식 2층집과 문물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서 손중산은 기자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 중국인들에게 중국 평화 통일을 호소하였으므로 '중국 혁명의 증거물'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④ 송칭링 고거 宋庆龄故居纪念馆-淮海中路1843号

손중산(孙中山)의 아내이자 1959년부터 1966년까지 국가부주석 자리에 있었던 송칭링은 중국 해방사업, 여성 보건사업 등 많은 업적을 이루며 현재에도 중국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상해 송칭링 고거는 그녀의 일생 중 가장 오랜 기간 머물렀던 곳으로 1948년부터 1963년까지 16년간 거주했으며, '전국중점문물 보호단위'로 지정되어 있다. 송칭링은 고거내에서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덩샤오핑 등 여러 명의 국가급 지도자들과 회담을 가졌었다.



⑤ 상해 유대인 난민 기념관 犹太难民纪念馆-长阳路62号

1938년 8월 15일부터 오스트리아에서 최초의 유대인 난민이 이탈리아 배로 상해에 도착했으며, 1939년 6월까지 8200명이나 되는 유대인 난민이 도착했다. 60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이 학살당했을 때, 3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이 상해에서 살아남아 새로운 생활의 길을 열었다. 기념관의 모세회당은 주로 유대인 난민들의 모임이 자주 있었던 장소이다.

